

발타사르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구원론 Balthasar Hubmaier's Doctrine of Salvation in Dynamic and Relational Perspective

들어가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기독교 내의 부패한 기존 세력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는 루터, 쾰링거, 그리고 칼빈과 같은 온건한 개혁자들과 유사했으나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바꾸고자 했던 급진적 세력이 있었다. 그들 중의 하나가 아나뱃티스트(Anabaptist, 재세(침)례파)이다. 아나뱃티스트(Anabaptists: Re-baptizers)란 1525년 1월, 스위스 쥐리히에서 쾰링거와 함께 개혁운동을 펼치던 그룹 중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쾰링거의 교회 개혁 방법론 온전한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여 그들만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신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발타사르 후브마이어 (Balthasar Hubmaier) 또한 동시대의 아나뱃티스트 중의 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는 16세기 초에 있었던 급진적 종교개혁자들 중 가장 창조적이고 뛰어난 저술가이자 개혁자로 인식된다. 그는 종교개혁 전에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또한 신학자로서 유명했고 탁월한 설교자로서 인정받았으나,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521년 전후를 해서 그는 종교개혁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523년에 스위스에서 쾰링거와 후에 아나뱃티스트의 리더들이 될 콘라드 그레벨 (Conrad Grebel) 등의 개혁자들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자의 사상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1525년 4월 아나뱃티스트가 된 후브마이어는 1528년 3월 10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화형으로 순교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교회개혁을 추진했으며,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또한 많은 저술들을 남기게 되었다. 그는 비록 가톨릭과 주류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화형 되었지만, 그의 저술들은-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17세기 가톨릭의 스페인 종교재판에서의 금서목록에도 들 정도였다.

그러면, 후브마이어는 가톨릭과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정말 이단자이었던가? 후브마이어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동시대의 다른 아나뱃티스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바와 같이, 기존 교회의 전통으로 인정되던 유아세례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당시 가톨릭에서의 유아세례란 성례전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 교회 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등록되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의 거부는 곧 교회의 전통에 반기를 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을 위반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는 세례론은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만, 유아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으로 인정하는 데는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며, 유아세례의 거부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염려는 가톨릭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후브마이어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신자의 세례를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교회 전통을 위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자들에게 신자의 세례 (성인세례)의 주장이 결코 이단 정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후브마이어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좀 더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던 비주류 개혁자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가톨릭과 주류 개혁자 모두에게 이단으로 정죄된 후브마이어의 사상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브마이어에게 있어서 개혁자로서의 사역이란 가톨릭에서의 오래된 부정과 부패, 잘못된 교회전통으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했다. 이것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 성경에 근

거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어떻게 교회전통을 고쳐 나가는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가톨릭의 교회전통을 넘어서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했던 유아세례의 이슈도 다름으로써 후브마이어는 교회개혁의 문제가 단순히 가톨릭의 전통을 고쳐나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그의 개혁적 사상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의 전통이라고 치부하여 쉽게 간과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재고를 통해 지속적인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후브마이어가 남긴 대부분의 글은 크게 세가지의 주제 즉, 세례, 성만찬 그리고 자유의지에 관해 쓴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시대의 주류 종교개혁자들 (루터, 츠빙글리 등)이 가톨릭의 성례에 관해 반대하고, 가톨릭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썼다면, 후브마이어는 가톨릭의 개념에 대한 성례와 구원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고 동시에 주류 개혁자들이 주장한 성례와 그들의 구원관에 대한 문제점들과 한계점을 지적하기 위해 글을 썼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며 강조한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를 본 후브마이어는 루터의 이신칭의의 구원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후브마이어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의 기본적인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루터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믿음에 의한 구원의 의미에서 삶의 변화가 강조되지 않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후브마이어의 사상은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교회들은 교세의 성장을 위해서 구원의 의미를 값싸고 쉽게 얻어지는 천국 행의 보험처럼 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의 문제가 직접적 연관이 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로 자신들의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초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구원론 '이신칭의'가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후브마이어도 루터처럼, '이신칭의'의 구원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론은 루터가 해결하지 못한 '이신칭의'의 강조 속에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속에서 발전되었다. 따라서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해하는 믿음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 이슈들 (자유의지, 세례, 성만찬)과 연관되는데, 그가 남긴 대부분의 글들이 이것에 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나는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첫째 후브마이어의 인간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의지와 믿음의 의미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둘째 믿음을 전제로 행해지는 세례가 후브마이어가 이해하는 구원의 의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고 셋째로 성만찬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후브마이어가 이해하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발타사르 후브마이어 (Balthasar Hubamaier)는 누구인가?

후브마이어는 16세기 초기 아나밥티스트의 리더들 중에서 유일한 신학박사 출신이자 가톨릭의 사제 출신이었다. 그는 비록 아나밥티스트로서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활약했지만, 그가 남긴 많은 글들과 사역은 그가 훌륭한 저술가로서 설교가로서의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다. 후브마이어는 1480년 (또는 1481년) 에 아우그스부르크 (Augsburg) 근처의 프리드베르크 (Friedberg)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신자였기에, 그는 경건한 종교적 가정생활 속에서 자라났고, 1503년에는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대학에 들어가서 당시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로서 후에 라이프찌히 (Leipzig)에서 루터 (Luther)와 칼슈타트 (Karlstadt)의 대적자로 종교 논쟁을 하게 되는 존 에크 (John Eck)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그의 신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는 1505 (또는 1506)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 사제가 된 후, 1512년에는 다시 그의 스승 John Eck를 따라 잉골슈타트 (Ingolstadt) 대학으로 가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신학교수가 되었다. 또한 그는 그 대학의 설교자로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교회인 동정녀 교회 (Church of Virgin)의 사제로서 임명되었다. 1522년에는 인문주의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그의 신학사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바울서신에 대한 연구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스위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다. 1523년부터 본격화 된 그의 교회개혁은 발트슈트 (Waldshut)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가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 정부의 위협으로 피하여 스위스 샤프하우젠 (Schaffhouse)으로 사역지를 옮긴 그는 스위스의 진보적인 개혁자들과 개혁에 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사상을 발전시켰다. 15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아세례에 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한 후브마이어는 1525년 4월 15일 (부활절 전일)에 60여명의 다른 신자들과 함께 본인도 아나밥티스트임을 선포하며 재세(침)례를 받게 되고 다음날 부활절에 300명이 넘는 다른 신자들에게 성인세례를 베풀으로써 본격적인 아나밥티스트로서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의 뛰어난 신학적 지식은 쾰빙글리가 비판하는 아나밥티스트와 성인세례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아나밥티스트 사상에 힘을 실었으나, 유아세례의 거부를 통해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쾰빙글리는 후브마이어에게 그가 주장한 신학사상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데, 모진 감옥살이 등의 어려운 삶에 결국 후브마이어는 자신이 주장했던 신학의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씌으로써 쾰빙글리를 만족시키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나밥티스트로서의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데, 모라비아 지역의 니콜스부르크 (Nikolsburg)에세의 개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526-7년 짧은 기간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후브마이어는 그 시에서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 중의 하나인 자유의지에 관한 두개의 글을 포함한 16개의 글들을 저술했다. 페르디난드 1세 (Ferdinand I)의 지배하에서 1527년 8월 28일에 만들어진 보름스 (the Diet of Worms)칙령에 의해 강화된 이단에 대한 가톨릭의 박해는 후브마이어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여 크로이젠슈타인 (Kreuzenstein) 감옥에 가두고, 그가 주장한 사상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후브마이어는 유아세례와 성만찬, 연옥에 대한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1528년 3월3일에 비엔나에서 화형에 처해지고, 그의 아내는 목에 돌을 묶은 채 물속에 던져져 익사 당했다. 후브마이어는 아나밥티스트로서 3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가 이루어 놓은 사역과 저작물들을 통해 당시의 아나밥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후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늘 되새겼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The truth is immortal) 이라는 신념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도전을 제시한다.

2. 후브마이어의 자유의지 (Freedom of the Will) 론에 관하여

2.1 동시대 학자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후브마이어와 동시대에 살았던 가톨릭의 신학자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도덕적 삶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강조한 노예의지론 (the bondage of the will)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에서 참다운 선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은 또한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이해와 연결된다.

2.2 후브마이어의 삼분법 (Trichotomism)

후브마이어는 믿음을 설명하는데 인간의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은 영, 혼, 육의 세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삼분법을 전제하며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3 자유의지를 강조한 후브마이어는 펠라기안 (Pelagian) 또는 세미 펠라기안 (Semi-Pelagian)인가?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지의 강조는 펠라기안 논쟁 (Pelagian Controversy)과 연결해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주류) 개신교 관점에서 보면 구원론의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지의 강조는 펠라가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이단인 것이다. 다시 말해, 논쟁의 요점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구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간의지를 강조한 후브마이어 또한 펠라기안과 같은 부류인 것인가?

2.4 후브마이어의 자유의지에 관한 독특한 관점에서의 이해

후브마이어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란 의미에서 자유의지의 강조는 구원의 주체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4.1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자유의지

후브마이어는 구원론속에서 자유의지의 의미는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써, 즉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이룬다는 transactional and objective의 이해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지금 여기에'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2.4.2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도구와 같은 자유의지

후브마이어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도구로 이해된다. 여기서 인격적이란 (Personal)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에 대한 어느 한쪽의 주도권에 대한 의미를 배제하게 한다.

3 후브마이어의 세례론에 관하여

3.1 '신자의 세례' (Baptism of Believers)를 위한 후브마이어의 방법론

3.1.1 성경적 해석에 관점을 둔 세례의 이해

후브마이어는 세례에 관한 논쟁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세례에 관해서 성경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1.2 후브마이어의 '세례'를 위한 전제조건

수세자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기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청취'(hearing of the word of God)이다. 하나님 말씀의 청취가 없이는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2 요한의 세례 (Baptism of John)와 그리스도의 세례 (Baptism of Christ)에 관하여

중세시대에서 성례론을 설명할 때 중요한 성경해석의 하나였던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에 관한 해석은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쾰빙글리와 후브마이어 또한 이 문제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3.3 후브마이어의 삼중세례 (Threefold Baptism)에 관하여

3.3.1 성령세례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세례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 조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에 베푸시는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을 포함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라 살겠다는 자신의 헌신과 고백의 내적 반응을 의미한다.

3.3.2 물세례 (Baptism of Water)

물세례란 수세자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는 내적인 믿음의 고백을 다른 신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물세례의 의미는 수세자가 가시적 교회 (Visible Church) 속으로 들어가는 입문과정을 뜻한다. 셋째로 물세례를 통해 죄 용서의 의미는 어느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공동체 (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3.3.3 피세례 (Baptism of Blood)

피세례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누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원죄와 유아세례에 관하여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주류개혁자들은 유아세례와 원죄를 연관하여 설명한다. 동시대의 다른 재세례파들은 원죄를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거부한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원죄를 인정하지만 유아세례를 거부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3.5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세례

4 후브마이어의 성만찬 (Lord's Supper)

4.1 성만찬론을 위한 후브마이어의 방법론

4.1.1 기독교론 (Christology)의 관점에서의 성만찬론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의 떡과 잔이 성례를 통해 진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 (transubstantiation)을 믿고, 루터는 비록 성만찬에서 떡과 잔이 진짜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실제 임재를 통한 공재설 (consubstantiation)을 주장한다. 그러나 쾰링은 성만찬의 떡과 잔은 예수의 살과 피를 단순히 기념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성만찬이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의 경험을 의미한다.

4.1.2 성만찬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성만찬은 세례를 통하여 참여자의 신앙이 먼저 고백 되어야 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라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4.2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성만찬의 의미

4.2.1 현재적 시점의 관점에서 기념식 (Memorial)

성만찬은 이천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지금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 책임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4.2.2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사랑의 서약 (Pledge of Love)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인식하는 성만찬은 하나님과 참여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할 때 의미를 가지지만, 사랑의 서약과 같은 성만찬의 의미는 참여자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4.2.3 치리와 출교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이가 죄를 지었을 때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감취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치리와 출교는 그를 죄인이기에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을 말한다.

5 결론: 후브마이어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구원론의 의미

5.1 마틴 부버 (Martin Buber)의 대화인격주의 (Dialogical Personalism)과 후브마이어의 구원론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인 구원에 대한 인식은 마틴 부버의 대화인격주의의 개념을 이해할 때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인격적이란 의미는 나와 상대방중에서 어느 한 쪽이 주도권을 잡을 때 그것은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부버의 주장은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단순히 관계의 의미를 일대일로만 한정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신자들, 그리고 나와 세상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좀 더 포괄적 개념에서의 관계론을 보여준다.

5.2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의 함의

5.2.1 구원의 본질

믿음에 의한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입으로 신앙의 고백하는 것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있고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과거나 미래의 관점에서 강조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나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5.2.2 공동체와 같은 교회의 본질

공동체와 같은 교회란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간의 교제 가운데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려면 대형교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보살피고 격려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5.2.3 성례의 중요성

올바른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의 인식과 실행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구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예식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